

시설 노후 여수산단 사고 잦다

GS칼텍스 공장 화재...2000년 이후 사고 86건·사망 37명

일부 안전 불감증 속 근본 대책 시급

‘화약고’로 불리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잇단 화재·가스누출·폭발 사고와 대형 정전 사고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60년대 국가번영의 상징으로 세워진 여수산단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실제로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밤 11시40분께 여수시 국가 산단 내 GS칼텍스 정유1공장 제2 상압증류탑 배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 배관 등을 태우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여수소방서 소속 소방차 70여 대와 소방대원 120여명이 긴급 출동해 진화 작업을 펼쳤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불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은 80여만원으로 파악됐지만, 화재가 난 공장이 GS칼텍스 여수공장 1일 원유처리량(77만 배럴)의 17%가량인 13만 배럴을 처리해 온 점을 감안할 때 간접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장 측과 소방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인해 대형 화재로 확대되지 않았지만, 화약공장에

서 발생한 만큼 위험천만한 화재였다.

13일 여수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를 포함해 2000년 이후 여수 산단 내에서 발생한 화재·폭발·가스누출·정전 등 각종 사고는 모두 86건에 인명피해만도 사망 37명을 비롯,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대형사고를 간추려 보면 지난 2000년 8월 호성케미칼 공장 가스폭발로 3명이 숨지고 공장이 완전 파괴됐으며, 다음해 10월에는 호남석유화학 남사 탱크 화재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화상을 입기도 했다.

2005년 7월에는 (주)M&H사의 이송라인 드레인 밸브가 개방되면서 열산가스가 누출돼 수심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근 3년 사이에는 대형 정전사고도 발생해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기도 했다.

여수산단의 경우 각종 위해성 물질을 대량 생산하거나 또는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작은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화약고’로

■여수산단 사고 현황

구분	건수	인명 피해(명)	
		사망	부상
70년대	7	9	-
80년대	33	31	2
90년대	122	32	117
2000년	15	8	32
2001년	9	8	4
2002년	11	3	3
2003년	6	5	9
2004년	11	5	4
2005년	6	1	1
2006년	10	1	2
2007년	10	5	4
계	240	106	178

▲여수국가산단 = 지난 1967년 LG칼텍스 정유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 현재 총면적 3천171만1천㎡에 255개 업체가 입주해 이중 179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공단 근로자 수만 1만3천425명에 이르고 있다.

불리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불안전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그동안 발생한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부주의’와 안전관리 소홀 때문에 일어났으며, 일부 고 1명이 중화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올해 1월 여수소방서가 여수산단 내 160개 업체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 43개 업체에서 안전시설 미흡 등 규정 위반 사례가 14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공단 조성이 40년 가까이 되면서 시설 노후화는 물론 인화성·폭발성·가연성 물질의 취급이 극대화

되면서 여수산단의 안전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 시민·환경단체들은 “정부는 여수산단의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산단 전체에 대한 대책수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노후한 공장이 대규모 시설을 갖춘 경우 수많은 종류의 설비를 안전하게 보수·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보다 체계적인 안전점검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방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음란 광고 신고합니다” 광주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남구 주택가 등에서 수거한 명함형 불법 광고물 410장을 13일 오후 남구청에 신고하고 있다. 감시단은 지난달 광주 지역 유흥가와 주택가를 돌며 884장의 음란광고물을 수거한 뒤 이날 각 구청별로 신고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침 (7626) 김장동



다 좋은 건축·산업지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저렴 및 상담 환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본점 : 061) 337-0571

해경 함정 5척 중 1척 사용 연한 넘겨

해양경찰청의 경비함 5척 중 1척은 교체 주기를 넘겨 최고 수심난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한나라당) 의원이 1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276척 중 19%인 52척은 선령(船齡)인 15~20년을 넘겨 노후화한 것으로 드러났

다. 해경 경비함 사용 연한은 강선(鋼船)이 20년간이고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은 15년간이다.

선령을 넘긴 함정 중 대형(1천t 이상)은 5척, 중형(250~500t)은 28척, 소형(100t이하) 및 특수정은 19척으로 집계됐다.

목포해경의 경우 1981년 함정이, 완도해경에도 1979년 출고된 함정이

수명주기 20년을 초과해 운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은 의원은 “해경 전체 함정의 평균 선령은 18년이지만 현재 해경은 이를 5.9년 초과한 평균 24.2년째 함정을 운용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 해경이 중국 여선의 불법조업 단속 도중 사망하는 등 최근 해양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 강화를 위해서 장비 보강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

“권총 휴대 내부 검거지침 안지켰다”

무리한 단속에 박 경위 사망

지난달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여선을 단속하다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48) 경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해경은 내부 검거지침과 달리 진입 장비를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단속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민주당) 의원이 12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박 경위 사망 사고 당시 목표 해경 소속 3003호 함은 진입용 장비만 갖고 단정(boat)을 이용해 중국 여

선의 단속에 나섰다.

당시 단정을 타고 단속에 투입된 8명의 검색조가 휴대한 장비는 통신기, 경찰봉, 수갑, 가스총, 전자충격기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권총과 실탄 등 상대 출반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박 경위 사망 사고 당시 목표 해경 소속 3003호 함은 진입용 장비만 갖고 단정(boat)을 이용해 중국 여

아들 방화 추정 불 80대 아버지 숨져

지난 12일 오후 5시50분께 순천시 월등면 박모(80)씨의 목조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박씨가 숨지고 안방과 마루 등을 태운 뒤 약 3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존속상해혐의로 수감됐다 6일전 출소한 집주인 박씨의 아들(54)이 “아버지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평소 말해왔다는 점에 비춰 아들 박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추측 중이다.

경찰은 가족과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들 박씨가 달아난 아산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광주지검, 이정섭 군수 보석 취소 요청

공무원 인사와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쟁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이정섭 담양군수(59)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원에 보석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광주지검은 13일 이 군수 등 관련 자들에 대한 비공백 속행 재판에서 “이 군수가 증거지를 자택으로 한정 한다는 등의 제한조건에 동의하고 보석으로 풀려났음에도, 서울 등 타지로 출장가가 하면 증거조작 또는 인멸의 우려도 있어 취소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7월 5천만원의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한편 법원은 당초 이날 이 군수 등 관련자 6명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국감준비 등으로 일정이 촉박해 3명에

담배 도둑 버스가사에 들켜 멀미
○유리창을 부수고 구멍가게에 침입, 담배 수십여갑을 훔쳐 달아나려던 40대 남성이 버스 종점에서 대기중인 버스 기사에 들켜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5)씨는 지난 12일 낮 12시30분께 동구 지산동 무원지 정문 구멍가게에서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가게 유리창을 깬 후 담배 70갑(시가 1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건.

○정씨는 훔친 담배를 들고 도망가려다 버스 종점에서 때마침 출발을 앞두고 휴식 중이던 버스기사에게 범행 장면을 들켜 현장에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된 것.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주인없는 가게에 담배가 쌓여있는 것이 보여 순간적인 실수로 훔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